

## 〈호동서락기〉 이본 『금원집(錦園集)』 연구\*

—김금원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위하여—

김경미\*\*

<차 례>

1. 머리말
2. 『금원집』의 서지적 특성과 <호동서락기>와의 비교
3. 금원에 대한 평가와 기녀 시인의 자리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호동서락기>의 이본인 『금원집』을 처음 소개하고 이를 연대본 <호동서락기>와 비교 분석하여 그 특성을 드러낸 뒤, 이를 금원과 관련된 자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것이다. 이화여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원집』에는 <호동서락기>와 금원의 시 두 편, 죽서의 시 한 편과 죽서에 대한 소개가 실려 있다. 『금원집』 수록 <호동서락기>는 연대본에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기녀 금영의 존재를 밝히고 있고, 운초, 죽서, 경춘 등 금원이 삼호정시사에서 함께 한 여성 시인들의 평문과 발문이 없다. 또 이대본 <호동서락기>의 서문과 연대본의 서문은 취지는 비슷하지만 분량과 내용 면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이대본은 여성에 대한 규제를 비판하면서 뛰어난 업적이나 행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피력하고 진덕여왕, 허난설헌 등 문학에서 뛰어난 성취를 남긴 여성을 높이 평가한 데 비해 연대본은 중국 고사나 유교 경전을 인용하면서 여행을 하는 이유나 여성이 여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 자신이 여행을 하려는 이유를 전개한다. 또 두 이본 사이에 자구와 표현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 이대본이 현재 전하는 연대본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36569).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호동서략기>가 아닌 다른 이본을 보고 필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금앵의 존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금원 사후에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9세기 남성 문인들이 기록한 금원 관련 자료는 금원이 기녀로 활동했을 당시의 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금원 자신의 기록이나 금원 집안사람들의 기록에는 기녀 관련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시인으로 기억되려는 금원과 기녀 시인으로 기억하려는 당대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금원집』과 연대본 <호동서략기>는 이러한 두 경향을 텍스트로 보여주고 있다.

□ 호동서략기, 금원집, 김금원, 삼호정시사, 김억, 기각한필

## 1. 머리말

<호동서략기>는 19세기 여성 시인 금원(錦園, 1817~?)의 여행기로, 대표적인 여성 산문으로 그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금까지 금원의 생애와 작품 세계에 대한 연구는 연세대학교 소장본 <호동서략기>와 19세기 사회 관련 자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호동서략기>가 금원의 여행뿐만 아니라 시 세계와 교류 관계, 금원의 의식을 보여주는 일종의 문집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그에 비견할 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굴된 『기각한필』에 실린 금원 관련 시나 문집 등에 남아 있는 금원 관련 자료들을 아울러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연구사의 아쉬운 점이다.

<호동서략기>에 대한 연구는 김지용의 삼호정시사 연구 이래 네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조선후기 시사 연구의 확장, 여성 사회 연구의 하나로 김지용, 김경미, 박영민, 조연숙, 이효숙 등에 의해 삼호정시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sup>1)</sup> 둘째, 금원이라는 여성 작가의 삶과 의식세계에

주목하여 금원의 여성의식, 자의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차옥덕, 서현아, 김경미, 백민자, 손앵화, 하경숙 등은 금원의 작품 세계가 새로운 여성 정체성, 도선적 의식지향, 새로운 ‘여성되기’, ‘전세(傳世)’ 열망 등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했다.<sup>2)</sup> 이 과정에서 금원의 여행이 동기(童妓) 시절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sup>3)</sup> 셋째, 안순옥, 이효숙 등이 여행기로서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글쓰기 방식과 산수문학적 특징을 연구하였다.<sup>4)</sup> 넷째, 금원을 조선의 여성지식인의 일원으로 보고 <호동서락기>에

- 1) 김지용, 『삼호정 시단의 특성과 작품』, 『아시아여성연구』 16, 1977, 105~143쪽, 김경미, 『조선 후기의 새로운 여성 문화 공간, 삼호정시사』, 『여/성이론』 5, 2001, 225~242쪽, 박영민, 『19세기 여성 사회와 문예 공간』, 『19세기 문예사와 기생의 한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87~134쪽.
- 2) 차옥덕, 『김금원의 시에 대하여-새로운 여성정체성 세우기』, 『고전문학연구』 15, 1999, 317~358쪽, 백민자, 『『湖東西洛記』一考』, 『국어문학』 50, 2011, 217~240쪽, 백민자, 『『湖東西洛記』와 금원의 傳世 열망』, 『語文研究』 78, 2013, 179~206쪽, 서현아, 『『湖東西洛記』에 나타난 金錦園의 삶과 의식지향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1~70쪽, 손앵화, 『조선조 여성 되기의 새로운 모색: 金錦園의 <湖東西洛記>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39, 2004, 164~186쪽, 하경숙, 『여성 인물의 현실인식과 의미 양상-금원(錦園)의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26, 2017, 145~172쪽.
- 3) 이효숙, 위의 글, 179~181쪽, 서현아, 위의 글, 13~15쪽. 금원의 집안 형편과 화려한 유람이 괴리가 있다고 보고 시사(詩詞)에 뛰어난 재주를 가진 기녀로 유람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호동서락기>에 나타난 금원의 여행은 분명 이러한 의문이 들게 한다. 예를 들어 산에서는 대부분 절에서 묵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데서는 어디서 묵었는지, 서울을 유람하는 중 김상서의 별장이 있는 삼계동으로 가서 서재를 보는데 어떤 인연으로 갔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김상서는 안동 김씨 가문의 김홍근으로 영의정을 지낸 인물이다. 이런 점들은 금원의 여행에 의문을 품게 한다. 그러나 만약 동기로 떠났다면 왜 굳이 남장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 혼자 떠난 여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가마를 타고 갔기 때문에 가마꾼이 있었고 또 같이 간 아이종도 있었다. 따라서 혼자 여행한 것이 아니라 가마꾼이나 아이 종 등 일행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4) 안순옥, 『호동서락기의 글쓰기 방식과 제재적 특질』,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0, 1~68쪽, 이효숙,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의 산수문학적 특징과 금원의

나타난 자연의식, 실증 정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혜순은 <호동서략기>에 나타난 기록의 유형을 나누고 그에 나타난 실증 정신을 분석한 뒤 금원 기록의 지성사적 의의를 밝혔다. 금원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호동서략기>에 발문을 쓴 여성 시인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는 김경춘이 <호동서략기>를 평가한 글을 대상으로 비평 양상을 살핀 이혜순, 이효숙의 연구가 있다.<sup>5)</sup>

이상의 연구들은 금원, <호동서략기>, 삼호정시사를 중심으로 금원의 생애, 여성의식을 분석하고 여행기로서의 특성과 산수문학으로서의 특성을 밝혔으며 글쓰기 방식과 비평 방식의 특성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유산기 문학으로서의 특성과 여성문학으로서의 중요한 특질이 드러났고 19세기 중반의 여성의식과 여성문학 활동 양상, 여성의 지식수준 등이 밝혀졌다. 현재 금원과 <호동서략기>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 대상을 글쓰기 방식, 비평 양상 등으로 세분화하여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결론이 기존의 연구에서 크게 나아가거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료의 제한성에서 비롯된다.

일찍이 김지용은 삼호정시단 연구에서 “여자도 한낱 人間이어늘 深宮 固門은 그 어찌 일신의 幽滯가 아니며 幃巾結帶는 그 어찌 四時의 古곡이 아니리오.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것은 그 어찌 죄없는 禁錮가 아니겠으며 花鳥月夕이 인간의 佳節이나 漫遊할 수 없으리라”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금원이 평소 사나이가 못 된 것을 큰 불행으로 여겼다<sup>6)</sup>고 언급

유람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173~211쪽.

5) 이혜순, 「19세기 중반 김금원의 기록과 실증 정신」, 『조선조 후기 여성지성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281~360쪽, 이혜순, 「19세기 중반 김경춘의 문학 비평」, 『조선조 후기 여성지성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361~387쪽, 이효숙, 「조선 후기 여성 문인의 시사와 김경춘의 비평」, 『우리文學研究』 53, 2017, 99~124쪽.

6) 김지용(1977), 앞의 글, 118쪽.

한 바 있는데 여기 인용된 구절은 연세대학교 소장본 <호동서락기>에는 없다. 이 구절의 출처는 신귀현의 『역대여류시가선』으로 보인다. 신귀현은 금원을 소개하고 금원의 시를 수록하면서 금원을 삼호정 규당학사 김덕희의 소실로 원주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사나이가 못 된 것을 한했다고 하면서 위 구절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sup>7)</sup> 이로 미루어 김지용과 신귀현이 본 자료가 동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호동서락기> 연구는 김지용과 신귀현이 대상으로 한 자료가 아니라 주로 허미자가 편한 『한국여성시문전집』에 수록된 연세대학교 소장본 <호동서락기>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신귀현이 인용한 <호동서락기>의 소재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금원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금원집』이라는 제목의 <호동서락기> 이본이 신귀현, 김지용이 언급한 <호동서락기>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본 연구는 금원 연구의 확장을 위해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은 <호동서락기>의 이본인 『금원집』을 소개하고 <호동서락기>와 비교 분석하여 그 성격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어 금원과 관련된 자료들과 함께 분석, 검토하여 금원의 교류 관계, 금원에 대한 당대 문인들의 평가와 금원의 자기 인식 사이의 어긋남, 그것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금원집』의 서지적 특성과 <호동서락기>와의 비교

### 1) 『금원집』의 서지적 특성

『금원집』은 이화여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으로 파란색

7) 신귀현 역편, 『역대여류시가선』, 학예사, 1939, 255~256쪽.

줄이 쳐진 종이에 1면 10행, 1행 21~22자가 필사되어 있으며 총 35장(70면)으로 되어 있다. 앞표지에 제목을 “湖洛鴻爪” “錦園集 單”이라 쓰고 내지에 “湖東西洛記全 女士錦園撰”으로 제목과 작가를 밝히고 있다. 『금원집』에는 <호동서략기>뿐 아니라 금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칠언시 <동지(冬至)>, <조춘서회(早春書懷)> 두 편, <죽서시초(竹西詩抄)>의 일부(1면)가 포함되어 있다.

『금원집』은 표지와 내지에서 제목과 작가를 밝혔으나 본문을 시작하기 전 1면 첫 줄에 또 “湖東西洛記 女史錦園撰”이라고 제목과 작가를 쓰고 금원 밑에 작은 글씨로 금앵(錦鶯)이라고 하여 금원이 기녀로 알려진 금앵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금원에 대해 “금원현종 때 사람은 호가 규당인 시랑 김덕희의 부실로 원주에서 태어났다(錦園憲宗朝時人 金侍郎德喜号奎堂副室 生於原州)”고 소개하고 “湖洛鴻爪”라는 소재목을 쓴 뒤에 본문을 필사했다. 이에 비해 연대본은 제목을 “湖東西洛記”라 쓰고 “錦園堂 著”라고 저자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대본은 또 연세대학교 소장본 <호동서략기>(이하 연대본 <호동서략기>)에 있는 발문은 필사하지 않고 “경술년 삼월 상순에 금원이 쓰다(歲在庚戌暮春上澣 錦園識)”로 마무리했으며 그 뒤에 다시 “女史錦園憲宗朝時人 金侍郎德喜奎堂副室 本姓○名金鶯 生於原州”라고 금원의 인적 사항을 다시 밝히고 있다.

마지막에 두 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 시 앞의 “不如鴈年 〃不得到原州”라는 구절은 마지막 장에 필사한 박죽서(朴竹西, 1817?~1851?)의 시구로 책을 묶을 때 잘못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두 편의 시는 『금원집』의 다른 곳에는 실려 있지 않은데, <동지>는 북쪽 땅에서 동지를 맞아 쓴 시로 의주에 있을 때 쓴 시일 가능성도 있으나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동지(冬至)

북쪽 땅엔 아직 눈바람 부는데  
황중<sup>8)</sup>의 울관이 그윽이 통하여  
어린 양기(陽氣) 움직여 처음 재를 날린 뒤<sup>9)</sup>  
짧은 해가 조금씩 약한 빛을 더해가네.  
인정은 세월 따라 조금씩 달라져도  
절기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구나  
수풀 가득 채울 봄빛을 누가 먼저 드러낼까  
추위 깨트릴 것은 매화 한 가지리라.<sup>10)</sup>

초봄의 감회[早春書懷]

가벼운 추위 간간이 창틈으로 들어오니  
발 낮게 드리우고 다경(茶經)을 뒤적이네.  
눈은 산 기운 받아 아직 희끗희끗한데  
풀은 봄 마음 받아 얼음 녹이고 푸릇푸릇.  
밤새 달빛 비쳐 시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니  
예로부터 술 이름은 별처럼 늘어서 있지  
이처럼 덧없는 인생 능히 받아들이나  
다만 앞으로 흘러가 잠시도 멈추지 않음을 아쉬워하노라!<sup>11)</sup>

8) 황중은 십이월의 하나로 11월 동지에 해당함.

9) 치양(稚陽)은 어린 양기로 음이 극성하다가 양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뜻으로 동지에 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말함. 고대에 절후를 살필 때 십이월에 맞게 관을 만들어 갈대 재를 채워두면 동지에 황중관에 울이 맞아서 황중관에 든 재가 날아 움직인다고 생각했음.

10) “北陸猶吹雪裏風，黃鐘應律暗相通，穉陽初動飛灰後，短晷纔添弱線中，漸見人情時日異，惟知節物古今同，滿林春色誰先漏，破凍梅花第一節。”(『금원집』) 이 부분 이하는 쪽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음.

11) “陳”輕寒乍透櫺，低垂簾箔點茶經，雪因山氣殘猶白，艸得春心凍更青，詩境現前

시 두 편 뒤에 <죽서시초>라는 제목으로 죽서에 대한 소개, 그리고 시 한 수를 필사했다. ‘대조참고(對照參考)’라고 쓴 것으로 미루어 죽서와 금원을 대조하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보인다.

죽서<sup>현종</sup>때 사람은 성이 박씨로 반남인이다. 국초에 좌의정을 지낸 금천부원군 박은의 후예로 선비 박종언의 측실의 딸이며 송호 서기보의 부실이다. 어려서부터 뛰어나 아버지 곁에서 놀며 아버지가 강습하는 말을 듣고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암송했다. 자라서 더욱 책을 좋아하여 소학, 경서와 역사서, 옛날의 작가와 시문에 모두 통달했다. 불행히도 자녀가 없이 죽었다. <반야당시집>이 있다.<sup>12)</sup>

이어서 필사된 죽서의 시는 원제목이 ‘모춘서회(暮春書懷)’인데 ‘모춘시회(暮春詩懷)’라고 잘못 적었다. 그러나 시의 내용은 동일하다. 죽서의 시는 금원이 쓴 <초봄의 감회>와 대비하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보인다.

늦봄의 감회[暮春詩懷]

꽃이 지니 초가을 같고  
밤 고요해 은하수 맑게 흐르니  
문득 이 몸 기러기보다 못해  
해마다 원주로 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노라.<sup>13)</sup>

『금원집』은 연세본 <호동서략기>에 있는 운초, 경춘, 경산, 죽서의 발

通夜月，酒名從古列天星，浮生若此能消受，只恨流先不暫停。”(『금원집』)

12) “竹西憲宗朝時人，姓朴氏，潘南人。國初左議政錦川府院君嘗之後，士人宗彥之側室女。徐松湖箕輔副室。幼時隸悟，嬉戲父側，聞講習語，暗誦無遺。長益耽書，小學經史古作家與詩文，無不通解。不幸無育而早逝。有半啞堂詩集。”(『금원집』)

13) “落花天氣似新秋，夜靜銀河淡欲流，却恨此身不如鴈，年々不得到原州。”(『금원집』)

문은 생략한 채로 마무리되어 있다. 전체 구성과 내용으로 보면 『금원집』의 가장 큰 특징은 금원에 대한 소개가 앞 뒤에 들어간 것, 서문의 내용이 다른 것, 금원의 시 두 편이 더 들어간 것, 발문을 생략한 것이다. 연대본 <호동서락기>가 편찬 연대를 1850년으로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금원집』은 필사 연대나 편찬 연대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푸른 껍선이 쳐진 종이에 필사한 점, 죽서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1851년 이후 20세기 초반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 2) 연대본 <호동서락기>와의 비교

이대본 <호동서락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서문에 해당하는 첫 부분의 내용이 연대본 <호동서락기>와 다른 것이다. 서문은 금원이 여행을 결심하게 된 동기, 여행에 대한 생각, 여성의 처지에 대해 쓰고 있어서 금원의 의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대본 <호동서락기>도 연대본 <호동서락기>와 마찬가지로 서문에서 여행에 대한 생각, 여성의 처지에 대한 생각을 쓰고 있으나 그 내용이 다르다.

사람이 남자로 태어나는 것은 행운이나 그 행동과 사적에 특별히 볼 만한 게 없으면 비록 남자라 해도 나는 반드시 수염 난 부인이라 부르리라. 사람이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불행이나 그 행동과 사적에 특별히 볼 만한 게 있으면 비록 여자라도 나는 필히 장부라 부르리라. 대개 천지의 삼재에 참여하는 것 또한 사람이니 깊은 궁 굳게 잠긴 문이 어찌 일신을 가두며, 깃발과 떠가 어찌 사시사철 구속하며,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니 어찌 죄 없이 간혀 있어야 하는가? 꽃 피는 아침, 달 뜨는 저녁은 비록 인간 세상의 이름다운 절기지만 이름난 산, 큰 강물에 자유로이 노닐지 못하고 비록 문 밖 가까운 곳도 나가 구경할 수 없으니 부모의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정숙한 여자에 지나지 않아서 그렇고 스스로 기준을 삼는 것도 이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는 볼 만한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이른바 여자 중의 여자이다. 진실로 뛰어난 성품과 슬기로운 생각이 규방의 뛰어남을 넘어서고 정해진 것 이상을 넘어서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강함을 용납하지 않고 또 막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진덕여왕의 <직금작태평송>과 허씨 난설현의 <몽유광상산>은 모두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으니 장부도 하기 어려운 것을 일개 여자가 해낸 것으로 참으로 천고에 남을 만하다. (이대본 <호동서략기>)<sup>14)</sup>

하늘 아래 강산은 크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세월은 오래되었다. …… 사람은 음양과 오행의 정기를 받아서 태어나 만물 중 가장 뛰어나지만 남자와 여자가 같지 않고, 재주와 기운에 높고 낮음이 있으며, 지식과 도량에 크고 작음이 있고, 무릇 장수와 요절, 귀함과 천함, 빈곤과 부유함이 또한 같지 않다. 요와 순의 높고 높음, 공자와 맹자의 분주함은 때가 같지 않아서이고, 안연이 일찍 죽고 도척이 오래 산 것은 운명이 같지 않아서이다. 직과 설이 보좌하는 신하가 되고, 이윤과 여상이 보필하는 신하가 된 것, 영자의 어리석음과 기자의 광기는 때를 만남에 행불행이 같지 않아서이다. …… 비록 그렇다 해도 눈으로 산의 거대함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사물의 많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변화에 통달하고 그 이치에 도달할 수 없어 국량이 협소하고 식견이 트이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어린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는 것이다. 남자는 사방에 뜻을 두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여자는 발이 규문 밖을 나가지 못하고 오직 술 빚고 밥 짓는 것만을 의논해야 한다. 옛날 문왕과 무왕, 그리고 공자와 맹자의 어머니는 모두 성스러운 덕이 있고 또 성인인 아들을 낳아 이름이 오래

14) “人之爲男子幸也，然其行事也無奇觀，則雖曰男也，吾必謂之髻婦也。人之爲女子不幸也，然其行事也有奇觀，則雖曰女也，吾必謂之丈夫也。蓋參爲天地之三才，是亦人也，深宮固門，是何一身之滯幽也，幃巾結帶，是何四時之拘束也，不得任意出入，是何無罪之禁錮也。花朝月夕，雖人間之佳節，不得以漫遊名山大川，雖門外之咫尺，不得以放曠。父母之所期望，不過貞淑女子是也，自所準的亦不過是也。職此之外，無足可觀，是所謂女中之女也。苟有靈性慧襟，出乎閨房之秀規矩之外者，人不強也，亦不容遏也。眞德女主織錦作太平頌，許氏蘭雪軒夢遊廣桑山，皆以詞章鳴於世，丈夫之所難能，而一女子辦之，良足千古也。”(<금원집>, 1쪽)

도록 뚜렷하게 남았으나 그 밑으로는 일결을 만큼 두드러진 사람이 아주 없거나 조금 있을 따름이다. 어찌 여자들 가운데만 유독 무리들보다 빼어난 그런 사람이 없어서겠는가. 혹시라도 규중에 깊이 있어 그 총명과 식견을 스스로 넓히지 못하고 끝내 사라져 묻혀버린 것이라면 슬프지 않은가.

(연대본 <호동서락기>)<sup>15)</sup>

이대본은 245자, 연대본은 408자로 길이부터 다른 두 서문은 내용도 차이를 드러낸다. 먼저 이대본 <호동서락기>는 남자라도 볼 만한 행동이나 사적이 없으면 수염 난 부인이고, 여자라도 볼 만한 행동이나 사적이 있으면 장부라고 하겠다는 말로 시작해서 여자가 규범에 갇혀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진덕여왕, 허난설헌 등 문학으로 이름을 떨친 여성들을 거론하면서 끝을 맺는다. 이와 달리 연대본 <호동서락기>는 천지 만물의 생성과 사람들 사이의 빈부귀천의 차이와 남녀의 차이가 생겨나게 된 이치를 따지고 때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예를 이야기한 뒤 여행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직접 산의 거대함을 보지 못하고 많은 사물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의 변화와 이치에 통달할 수 없는데 여자는 규문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총명과 식견을 넓히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두 이본 모두 첫 부분에서 남녀의 차별, 집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여자

15) “天下之江山大矣，古今之日月久矣。……人之生稟得二五之精，靈於萬物，而男女不同。才器之高下，識量之大小，與夫壽夭貴賤貧富，亦萬有不同。堯舜之嵬，孔孟之遑，時不同也。顏淵之夭，盜跖之壽，命不同也。稷契爲佐，伊呂爲輔，而寧子之愚，箕子之狂，所遇之幸不幸不同也。……雖然目不睹山河之大，心不經事物之衆，則無以通其變而達其理。局量狹小，見識未暢。故仁者樂山，知者樂水，而男子所以貴有四方之志也。若女子，則足不出閨門之外，惟酒食是議。在昔，文武及孔孟之母，皆有聖德，又誕聖子，故名顯萬世，下此而赫可稱者，絕無而僅有，豈女子中出類拔萃者，獨無其人耶。抑深居閨中，無以自廣其聰明識見，而終歸於泯泯沒，則可不悲哉。”(<호동서락기>, 465~467쪽)

의 위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글의 전개나 표현 면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연대본 <호동서략기>가 중국 고사나 중국의 역사 인물, 유교 경전을 인용하면서 산수를 보고 만물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를 들어 여행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반면, 이대본 <호동서략기>는 상대적으로 조선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남녀라는 성별이 곧 남녀의 우열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여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들고 있다.

논리 전개 면에서 보면 연대본 <호동서략기>는 중국 역사에서 고사나 인물의 예를 가져오거나 경전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또 문왕과 무왕, 공자와 맹자의 어머니를 여성의 모범으로 삼고 여행을 하는 이유를 공자의 말에서 찾는 데서 보듯 유교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대본 <호동서략기>는 연대본이 중국 역사나 경전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독자를 설득하는 것과 달리 여성이 규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부모가 정숙함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한다. 이대본은 연대본에 비하면 단순해 보이지만 직설적인 어법을 구사하고 있어서 주장이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서문 뒤에 두 이본 모두 ‘관동의 봉래산 사람으로 스스로 호를 금원’이라 했다는 금원의 자기소개가 이어진다. 이후 여행의 일정과 견문한 내용은 한 두 군데 생략하거나 첨가한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먼저 생략한 부분을 보자. 연대본 <호동서략기>는 금원이 서울에서 관왕묘를 보고 패사(稗史)를 인용해서 관왕의 신이한 사적을 기록한 부분을 실었는데 이대본은 그 인용 부분을 생략했다. 연대본에만 있는 내용은 청나라 가경신사년에 서양 적의 난리가 일어났을 때 임청 장군이 서양 도적을 토벌하려고 했으나 계속 패배하자 관왕이 나타나 도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역사적 사실과 어긋난다. 가경은 청나라 인종 가경제의 연호(1796~1820

년)인데 신사년은 1821년으로 가경 시기에 해당하지 않고, 임청도 천리교를 이끌다 1813년에 죽었으며 서양 적을 물리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연대본은 이 내용을 신고 그 출처를 패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대본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이하는 보정선사의 <사어>에 있는 것인데 삭제했다”<sup>16)</sup>고 하여 출처를 보다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예는 금원이 김항원의 시구를 인용하며 연광정의 진면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 부분에서도 볼 수 있다. 연대본은 연광정의 기둥에 있는 시구라고만 했으나 이대본에서는 주를 통해 “김항원 시”<sup>17)</sup>라고 시인을 밝히고 있다.

이외 의미는 같은데 글자를 달리하거나 순서를 달리한 경우, 자구 간의 출입이 있는 경우, 표현이 달라진 경우가 있는데 다음 몇 가지 예를 정리했다.

먼저 뜻은 같은데 글자를 달리 쓰거나 순서를 달리한 경우다.

〈호동서락기〉(연대본)	〈호동서락기〉(이대본)
女工	女紅
仁知之性	仁智之性
切膾啗之	切膾啗之
詩思澹蕩	詩思淡蕩
有似擎天	若擎天
領略無限之景	領略無窮之景
歸鳥倦飛於蒼碧	歸鳥倦飛於蒼壁
如皆玉立雪堆	皆如玉立雪堆
水色甚黃	水色深黃
瀉下絕厓	瀉下絕崖
眞堪爲仙鶴之所棲	眞堪爲仙鶴之所巢

16) “此下有宝淨禪師史語而削之.”(『금원집』, 23쪽)

17) “金黃元詩.”(『금원집』, 24쪽)

飛去不復還云	飛去不復廻云
眼底	眼下
又爲迦葉峯低	又爲迦葉峯下
而不食松粥爲三載云	不食松粥爲三年云
隱現於綠樹間	隱現於綠林間
而結眞緣矣	而結眞緣也

‘女工/女紅, 仁知/仁智’와 같이 음도 같고 뜻이 통하는 경우 달리 쓴 경우, ‘邦/國, 江山/天下, 美人/美女, 載/年, 樹/林, 矣/也’와 같이 뜻은 같지만 다른 글자를 쓴 경우, ‘如皆/皆如’가 있지만 각 이본이 각각 일정한 유형을 보인다 하기는 어렵다.

다음은 자구의 출입이 일어난 경우다.

〈호동서락기〉(연대본)	〈호동서락기〉(이대본)
將深宮固門	深宮固門
微聞漁歌聲	微聞歌聲
有老人對局之形	有如老人對局之形
鄭道元	鄭元
傳言貞明公主所施佛云	傳言貞明公主之所施佛云
轉往須彌塔 在須彌峯下	轉往須彌塔 〃 在須彌峯下
鸞鳳麒麟	鸞鳳麒麟駉虞
年今九十七	年今九十七歲
枝 〃 間列坐五十三佛	枝 〃 間 〃 列坐五十三佛
蒸飯於此釜	蒸飯於此
高不知幾許仞	高不知幾仞
高麗	高麗國
山海之壯觀	山海之壯
必動天下之民力盡數斲毀	必動天下之民力盡數斲毀此叢

‘漁歌聲/歌聲’, ‘九十七/九十七歲’, ‘高麗/高麗國’, ‘山海之壯觀/山海之壯’처럼 뜻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 ‘盡數斲毀/盡數斲毀此叢, 蒸飯於此釜/蒸飯於此’처럼 목적어가 있거나 없는 경우들이 보인다. 이 경우에도 연대본과 이대본이 어떤 일정한 유형을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표현을 달리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호동서락기〉(연대본)	〈호동서락기〉(이대본)
巧舌交 "	玉音交 "
風靜浪平, 坐如畫舫	風靜浪平, 舟穩不傾
水鳥出沒於天光雲影之間 眞畫中景也	小島出沒於天光雲影之間 眞畫中境也
捐青蚨而換白魚	捐青錢而換白魚
松江四鯰	松江鱸魚
晉處士桃花源記	陶淵明記桃花源
南聲亟胡 北音清越	南聲亟湖 北聲清越
鄴道元	鄴元
山路春深綠肥紅瘦	山路春深葉綠花稀
寄巢化胎於此峯	寄巢育雛於此
山谷變容	山色變容
遙望滄海 與天一色	遙望海色 與天爲一
彩霞集仙之峯	彩雲集仙之峯
十居八九矣	十居七八矣
凡有可觀處	凡有可觀者
而從古無此患云	而從古無他患云
命茶童進茶	命小童進茶,
盡輸吾眼底矣	亦不可形言矣
而謾惹出遼東浪死之謠	不能克有無向遼東浪死之歌
而尙不免玄花白羽之句	不免傷目而歸
朱輪碧蹄謁導聲	朱輪碧蹄帝相人
先王所以爲後昆貽厥之意	先王所以爲後世眷 " 之意
英靈毅魄撐巨宇宙	精忠義魄炳郎千秋

‘巧舌/玉音, 茶童/小童’과 같이 표현을 달리했으나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모두 내 눈 아래 있었다[盡輸吾眼底矣]/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亦不可形言矣]’와 같이 표현이 달라지면서 의미가 달라진 경우도 있다. 역도원(酈道元)의 경우 이대본은 역원(酈元)으로 쓰고 있는데 역도원, 역원 둘 다 쓰인다. 도연명의 경우 연대본은 진처사(晉處士), 이대본은 도연명(陶淵明)으로 쓰고 있고, 돈을 가리키면서 연대본은 청부(青蚨), 이대본은 청천(青錢)이라고 했다. 청부는 돈을 뜻하는 말이지만 청천의 경우 청동전(靑銅錢)을 줄인 말로 돈이라는 뜻도 있지만 재주 있는 선비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인다.

이외 이대본의 경우 周倉을 周昌으로, 錦衣를 金衣로 잘못 쓰고 있으며, 연천(淵泉) 김상서를 홍상서로 잘못 쓰고 있기도 한데, 이는 연천 김이양(金履陽, 1755~1845)과 연천 홍석주(洪奭周, 1774~1842)를 착각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연대본에서 洪慶來로 잘못 쓴 것을 洪景來로, 금원의 동생 경춘의 이름을 鏡春으로 잘못 쓴 것을 瓊春으로 쓰고 있다.

이상 두 이본은 여행한 내용이나 의식 면에서 큰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자구, 표현, 형식 상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았다. 특히 형식 면에서 『금원집』이 발문을 넣지 않은 점은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글자나 표현, 오류의 측면에서 볼 때 두 이본이 각각 어떤 두드러진 경향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금원집』의 경우 정확하지 않은 폐사의 기록을 삭제하고 출처만 남긴다거나 연광정에 걸린 시가 김황원의 시라고 밝히고, 진처사를 도연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금원집』의 편찬자가 당시 독자들이 연광정 시가 김황원의 시라거나, 진처사가 도연명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서문이 서로 다른 것도 이와 관련시켜 생각해 보면, 이대본 서문은 더 이상 유교 경전이나 유교적 여성 규범을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독자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반드시 시대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두 이본의 차이를 일관되게 반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두 이본은 사소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이본이 어느 한 본을 대본으로 필사했다기보다는 각각 다른 계통의 이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어느 본이 금원의 뜻을 더 반영하고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원집』의 특성을 살펴본 뒤에 다시 논하기로 한다.

### 3) 『금원집』의 특성

『금원집』과 <호동서략기>의 비교를 통해 드러난 『금원집』의 성격을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금원집』은 <호동서략기>에서 결코 드러나지 않는 기녀 금앵의 존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연대본 <호동서략기>에서 금원은 김덕희와의 관계, 운초, 죽서 등과와 교류 등을 언급하지만 기녀로 생활한 부분은 전혀 밝히지 않는다. 그런데 『금원집』은 금원이 기녀 금앵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아마도 『금원집』이 금원 사후에 성립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미루어 『금원집』은 금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한 편찬물로 볼 수 있다. 둘째, 이대본 <호동서략기>의 서문은 남자든 여자든 뛰어난 업적이나 행동에 따라 인정하겠다는 말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생각을 밝힌다. 그리고 진덕여왕, 허난설헌 등을 언급하며 문학에서의 뛰어난 성취를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연대본 <호동서략기>는 중국 고사나 유교 경전을 인용하면서 여행을 하는 이유나 여성이 여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 자신이 여행을 하려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셋째, 이대본 <호동서략기>는 지금까지 <호동서략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거론되어 온 운초, 죽서, 경춘 등의 평문과 발문을 신지 않고 있다. 연대본 <호동서략기>의 긴 서문과 마지막 부분의 평문과 발문은 여성의

여행에 대한 금원의 의식과 금원에 대한 당대 여성시인들의 평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장이다. 특히 경춘이 쓴 ‘정(訂)’은 서문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금원이 이 부분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펼쳐내고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도 불평스러운 마음이 맺혀 있어 유람의 뜻이 얼마나 절실했는지가 잘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대본 <호동서략기>은 이 부분을 축약하며 바꾸거나 생략하고 있다. 이처럼 이대본 <호동서략기>는 서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경춘의 정이 실릴 수가 없다. 이대본 <호동서략기>가 평문과 발문을 생략한 것은 이대본이 현재 전하는 연대본 <호동서략기>가 아닌 다른 이본을 보고 필사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울러 연대본 <호동서략기>가 금원의 의사를 더 반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넷째, 연대본 <호동서략기>와 『금원집』은 자구나 표현 면에서 차이를 드러내는데 『금원집』에 비해 연대본 <호동서략기>는 한문 고전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가진 독자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19세기 주요 문인들 사이에서 뛰어난 시인이자 문장가로 인정받았던 금원의 글을 엮어서 책으로 엮어내려는 시도는 여성 작가에 대한 근대 초기 사람들의 관심을 보여준다. 신귀현, 김안서가 여성시들을 번역, 편찬한 것에서 보듯이 근대 초기에 이르러 전근대 여성문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금원집』은 그 한 예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금원이라는 시인이 20세기 이후에도 뛰어난 시인으로 인정받았음을 확인시켜 준다.

### 3. 금원에 대한 평가와 기녀 시인의 자리

금원이 시와 문장으로 이름난 기녀였던 만큼 19세기 문인들의 기록에서 금원은 금원 또는 금앵이라는 이름으로 종종 등장한다. <육미당기>의

저자이자 남사(南社), 낙사(洛社), 낙산시사(駱山詩社)에 참여해서 활동했던 서유영(徐有英, 1801~1874)은 “시기(詩妓) 금앵”에게 <관동죽지사> 11수를 써주었고<sup>18)</sup>, 홍한주(洪翰周, 1798~1868)도 <남원창수집초(南園唱酬集鈔)>에서 금앵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남원창수집초>는 홍한주가 30~40대 중반에 서유영, 서준보 등과 한강 주변인 서호, 삼호 등에서 읊은 시들을 모은 시집이다. 여기에 홍한주는 원주 영 기녀인 금앵은 스스로 호를 금원이라 하고 22세인데 재주와 용모가 빼어나고 노래와 시를 잘 해서 동쪽 지방에서 유명하다<sup>19)</sup>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유원은 연천 김이양이 운초, 경산, 금원과 자주 어울렸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흩어졌다고 하고, 금원의 작품에 대해 시문이 화려했는데 의주에서 그 작품을 본 적이 있고 또 서울에서 김덕회를 애도한 제문을 서울에서 보았는데 여사(女士)의 작품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sup>20)</sup>고 평가했다. 이유원도 금원의 이름이 금앵이라고 밝히고 있다. 운초, 경산, 금원은 삼호정시사에 모인 인물들인데 이유원의 기록은 이들이 김이양과도 교류했음을 보여준다. 김이양은 운초를 소실로 삼은 인물인데 금원과도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도암 이재(李緯)의 증손자이자 김이양의 오촌 조카인 이휘정(李輝正, 1760~1850)의 『방야만록』에는 금원이 김이양과 함께 금강산과 단양을 여행한 사실을 보여준다.

금앵은 관동의 이름난 기생이다. 일찍이 시와 그림으로 봉조하 연천 김공을

18) 장호현, 『徐有英 文學의 研究』, 아세아문화사, 1988, 80~91쪽.

19) 홍한주, 『해옹시고』 권3, 『남원창수집초하(南園唱酬集鈔下)』, “原州營妓有錦鶯者, 自號錦園, 年二十二, 有才貌善歌詩, 名聞東州.”

20) 이유원, 『임하필기』 권33, 『화동옥삼편(華東玉糝編)』, “諸女史, “金淵泉, 八十七, 以三女史消遣. 雲楚女史, 名芙蓉, 成都人, 瓊山女史, 名洛仙, 碧城人, 錦園校書, 名錦鶯, 蟾江人, 未久皆散. 錦園歸於金侍郎德喜. 余見其作於侍郎在灣上時, 又見祭金文於都下, 非比女史作也.”

모시고 봉래산 구경과 단양 유람을 함께 하지 않음이 없었다. 10년 뒤 공이 시 네 수를 써서 마음을 전했는데 그때 공의 연세가 84세이고 무술년(1838년) 봄이었다. 금앵의 나이는 22세였는데 그 시에 화답하고 또 내게 보여주며 옛날 일을 이야기해주었다.<sup>21)</sup>

이 기록은 기해년(1839년) 7월 상순의 기록으로<sup>22)</sup> 이때 금원의 나이는 23세다. 위 기록을 통해 금원이 23세까지 금앵이라는 기녀로 있었고, 김이양과 12세 이후 금강산, 단양 여행을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은 금원이 동기로 여행을 따라갔을 가능성에 힘이 실리게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 금원의 여행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명되기 때문이다. 서울에 가서 김상서의 별장이 있는 삼계동으로 가서 서재를 볼 수 있었던 것도 김이양과의 인연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동기(童妓)로 떠났다면 왜 굳이 남장을 했는지, 혹은 왜 남장을 했다고 기록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는다.

이상의 기록들은 금원을 금앵이라는 이름난 기녀, 시문을 잘하는 기녀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문을 잘하는 인물로 평가하면서도 앞서의 기록들과 조금 차이를 보이는 기록들도 있다. 19세기 중반 여성시인이 창작한 필사본 한글 한시집 『기각한필(綺閣閒筆)』에는 기각이 금원에게 써 주거나 금원의 시에 차운한 시편들이 있어<sup>23)</sup> 금원의 교류 관계를 더 확장해 볼 수 있다. 기각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기각의 시

21) 이회정, 『방야만록(方野漫錄)』 권4,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錦鶯關東名妓也. 曾以詩書侍奉賀淵泉金公蓬萊之賞丹邱之遊, 靡不偕焉. 後十年公爲詩四首以寄意. 時公之壽八十四戊戌夏也. 鶯年二十二, 既和其韻, 遂又示余而道其舊.”

22) 이회정, 위의 책, “己亥秋七月上澣.”

23) 부유섭·강문중, 『『기각한필』 연구』, 『고전문학연구』 32, 2007, 435~464쪽.

를 통해 생몰 연대와 가계를 추정한 김여주는 기각의 생년이 대략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사이며 최소 1854년에 죽었고<sup>24)</sup> 기각의 오빠인 상회는 홍희인(洪羲人, 1787~?)일 것으로 추정했다.<sup>25)</sup> 홍희인은 해거재(海居齋) 홍현주(洪顯周, 1793~1865), 이만용(李晩用, 1792~1863), 홍우길(洪祐吉, 1809~1890) 등과 교유한 인물이다. 기각이 홍현주의 시에 차운한 시를 쓴 것도 홍희인과 홍현주의 교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각한필』에는 “우똥작시 스슈 촌금원운”, “증금원”, “금원춘운 이수”, “증금원딜너”, “죽하쌀” 등 금원의 시에 차운하거나 금원에게 준 시편들이 있다. 이를 통해 보면 금원은 기각의 조카였던 것으로 보인다.

#### 죽하쌀

그디가 규똥의셔 글과 지화가 오롯함을 스랑하여시니  
반치 두 대가의 스양치 아닐너라  
(반은 반고의 쌀 소요, 치는 치옹의 쌀 문희니 다 녀똥 문당이라 대가는 큰  
집이라 말이니 글 용흔 사름을 대가라 하느니라)  
보녀여온 새 시가 다 사름을 놀너니  
흔 번 읊흐미 쏏다운 향기가 뽀과 니의 가득허더리<sup>26)</sup>

#### 딜너

치가의 쌀과 소가의 누의가 가히 일흠을 아오를 거시니  
붉은 안방의 푸른 등잔이 눈의 비취여 붉더라  
츄라리 시를 읊쥬어리지 아닐지언정 읊쥬어리면 반드시 괴이하니

24) 김여주, 『『綺閣閒筆』』을 통한 19세기 여성문학 활동에 대한 일고찰, 『한문고전연구』 37, 2018, 182쪽.

25) 김여주(2018), 위의 글, 188~189쪽.

26) 임치균·부유섭·강문중 역주, 『기각한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65쪽.

몇 번이나 새 글씨를 가져 사름으로 향여금 놀리는고<sup>27)</sup>

두 시에서 기각은 금원이 뛰어난 시로 사람을 놀라게 한다고 금원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규방에 이런 글이 있는 줄 모르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각이 금원을 받고나 채문희, 소동파의 누이 같은 중국의 여성 문장가나 시인에 비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증금원덜너”에서 한 번 이별한 뒤 십년이 가깝지만 여자의 몸으로 나갈 수도 없어 글귀로 회포를 푼다고<sup>28)</sup> 한 것으로 미루어 자주 만나지는 못한 듯하다. 기각은 금원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녀 또는 금앵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고 규중의 인물로 본다.

김덕희가 죽은 뒤 금원이 쓴 제문은 현재 남아 전하지 않지만 추사 김정희가 금원의 제문을 읽고 칭찬한 글이 남아 있다.

지금 막 아이들로부터 금원의 제문을 받아 읽어보니 그 문장이 정에서 나온 것인지, 정이 문장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쓸쓸하면서도 은근히 독실하고 화려하면서도 서글퍼서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하더군요. 하지만 이는 오히려 둘째 문제고 어찌 이렇게 뛰어난 글이 있던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글의 기운이 차분하고 체재가 우아하여, 행동은 패옥에 맞고 얼굴은 동관(彤管)에 맞아 옛날 여사들의 규방의 기풍이 있고 분바른 여인의 기미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턱 아래 삼척(三尺) 수염을 휘날리고 가슴 속에 오친 글자를 지닌 사람으로서 부끄러워 바로 죽고 싶습니다. 집 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도 어떤 인물인지 모른 채 테두리 속의 한 평범한 사람으로 보았으니 이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문장을 품고 옥을 지닌 사람들이 예로부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 치 금심(錦心) 속에 넓고 넓은 바다와 높은 산을 품고 있어

27) 임치균·부유섭·강문중 역주(2015), 위의 책, 131쪽.

28) 임치균·부유섭·강문중 역주(2015), 위의 책, 195쪽.

헤아릴 수 없으니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합니다.<sup>29)</sup>

추사는 금원의 글을 보고 규방의 기풍이 있다고 평가하고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도 범상하게만 보았다고 탄식한다. 이 말은 추사가 금원이 시를 잘 썼다는 사실을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는 금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금원의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각 추사는 금앵이라든지 기녀라든지 하는 말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금원을 집안사람의 일원으로 보고 문장에 대해 극찬하고 있을 뿐이다.

20세기에 들어와 김안서는 조선과 중국의 여성시인의 한시를 번역한 <옥잠화>에 금원의 시를 수록하고, 금원을 “참관 김덕희의 소실로 원주 사람. 십사세 때에 남북하고 금강산이며 여러 명승지를 구경한 뒤 서울 와서 김씨와 인연을 맺어 용산 삼호정에서 운초, 경산, 죽서, 경춘 같은 당시 일류 구수시인들과 시를 지으며 여생을 마친 분. 그는 두고두고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항상 한했다고.”<sup>30)</sup>라고 하고 여섯 편의 시를 번역해서 실었다. 김안서도 김덕희의 소실이라고 할 뿐 금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금원에 대한 기록들은 금원을 한편으로는 뛰어난 시기(詩妓)로, 또 한편으로는 뛰어난 시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대본 <호동서락기>와 『금원집』 역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호동서락기>에는 어디에도 금앵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운초, 죽서 등을 언급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29) 김정희, 『완당선생전집』 권2, “卽從兒輩, 獲讀錦園祭文, 不知其文生於情, 情生於文. 崔穎婉篤, 哀艷悱惻, 足以動人, 尙屬第二義. 寧有如此奇文者乎. 最是辭氣安閒, 體裁雅正, 行中璜珮, 顏叶彤管, 有古女士閨閣風槩, 無一點脂粉黛緣氣味. 頷下橫三尺髻, 胸中貯五千字者, 直爲羞欲死也. 家中有如此人而不識何狀, 視一尋常勾欄中一輩人, 非徒爲此人悼歎, 懷書抱玉之人, 終古何限. 一寸錦心中, 藏得巨海崇山有不可測者. 烏平異矣, 烏乎異矣.”

30) 김안서, 『옥잠화: 김안서 번역시집』, 온이퍼브, 2016, ebook.

휘정의 언급에서 보듯 김이양을 동반하여 금강산과 단양을 여행한 적이 있음에도 금원은 가마를 타고 종을 데리고 갔다는 언급은 하지만 동행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혼자 여행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금원은 <호동서략기>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원했다. 그러나 그때 이름은 금앵이 아니라 금원이었으며, 문사로 남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경춘은 비평을 통해 금원의 포부와 문장의 기상을 드러내고자 했고 운초는 금원과 경춘을 반고와 반소 형제에 비유하며 그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들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볼 수 없다. 『금원집』은 여사 금원이 지었다고 하고 금원이 애써 드러내려 하지 않았던 금앵을 앞과 뒤에서 밝힐 뿐만 아니라 경춘과 운초의 평가들을 삭제하고 있다. 금원이 금앵이었던 것은 사실에 해당하고, 금앵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 것은 금원의 욕망이다. 글에서 보이는 자신만만함과 달리 금원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 것은 그녀라는 낙인이 이 자신만만한 여성시인에게 벗어나고 싶었으나 벗어날 수 없는 제약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두 이본 중 연대본 <호동서략기>가 후세에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금원의 의도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 『금원집』은 금원을 그녀 출신의 소설로 자리매김하지만 그 그녀의 책을 따로 엮어 줄 정도의 작가로 금원을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원집』의 존재는 <호동서략기>의 유통이 단일하지 않았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금원이 스스로 기억되고자 한 방식과 달리 세상이 기억하고자 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4. 맺음말

이 글은 <호동서략기>의 이본인 『금원집』을 처음 소개하고 <호동서

락기>와 비교 분석하여 그 특성을 드러냈다. 이어 금원과 관련된 자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금원의 교류 관계, 금원에 대한 당대 문인들의 평가와 금원의 자기 인식 사이의 어긋남, 그것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금원집』과 <호동서락기>의 비교를 통해 드러난 『금원집』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원집』은 금원이 <호동서락기>를 쓰면서 드러나지 않았던 기녀 금앵의 존재를 밝히고 있다. 연대본 <호동서락기>에서 금원은 김덕희와의 관계, 운초, 죽서 등과의 교류 등을 언급하지만 기녀로 생활한 부분은 전혀 밝히지 않는다. 그런데 『금원집』은 금원이 기녀 금앵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아마도 『금원집』이 금원 사후에 성립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 『금원집』은 금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한 편찬물로 볼 수 있다. 둘째, 이대본 <호동서락기>의 서문은 남지든 여지든 뛰어난 업적이거나 행동에 따라 인정하겠다는 말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생각을 밝힌다. 그리고 진덕여왕, 허난설헌 등을 언급하며 문학에서의 뛰어난 성취를 중요하게 거론한다. 이에 비해 연대본 <호동서락기>는 중국 고사나 유교 경전을 인용하면서 여행을 하는 이유나 여성이 여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 자신이 여행을 하려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셋째, 이대본 <호동서락기>는 지금까지 <호동서락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거론되어 온 운초, 죽서, 경춘 등의 평문과 발문을 신지 않고 있다. 연대본 <호동서락기>의 긴 서문과 마지막 부분의 평문과 발문은 여성의 여행에 대한 금원의 의식과 금원에 대한 당대 여성시인들의 평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장이다. 그런데 이대본 <호동서락기>은 이 부분을 축약하며 바꾸거나 생략하고 있다. 이대본 <호동서락기>가 평문과 발문을 생략한 것은 이대본이 현재 전하는 연대본 <호동서락기>가 아닌 다른 이본을 보고 필사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넷째, 19세기 주요 문인들 사이에서 뛰어난 시인이자 문장가로 인정받았던 금원의 글을 엮어서 책으로 엮어내려는 시도는 여성 작가에 대한 근대 초기 사람들의 관심을 보여준다. 『금원집』은 그 한 예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금원이라는 시인이 20세기 이후에도 뛰어난 시인으로 인정받았음을 확인시켜 준다.

두 이본의 존재는 세상이 금원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하는가와 금원 자신이 어떤 존재로 남고 싶어 했는가의 차이를 보여준다. 금원은 금앵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문사로 시인으로 남기고 싶어했고, 삼호정시사에서 어울린 비슷한 처지의 여성시인들도 그 뜻에 부합하는 글을 남기고 있다. 연대본 <호동서략기>는 이러한 금원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대본 『금원집』은 금원이 금앵이라는 것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금원에 대해 언급한 남성문인들의 기록들에서도 나타난다. 금원이 금앵으로 활동하던 시절 어울리거나 그 소문을 들은 문인들은 금원을 뛰어난 기녀시인 금앵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금원의 집안사람인 기각이나 추사 김정희는 문장으로 금원을 평가할 뿐이다. 금원이 금앵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에 해당하고, 금앵이라는 존재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은 금원의 욕망이다. 『금원집』의 편찬자는 비록 금앵의 존재를 드러내지만 금원을 책을 따로 엮어 줄 정도의 작가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금원집』의 존재를 통해 <호동서략기>의 유통이 단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원이 스스로 기억되고자 한 방식과 달리 세상이 기억하고자 하는 방식을 볼 수 있다. 이는 기녀 시인의 존재와 그에 대한 평가, 그리고 기녀 시인의 자의식 간의 거리를 보여준다.

이 글은 우선 『금원집』의 존재를 알리고 이를 연대본 <호동서략기>와 비교하여 그 성격을 검토한 뒤 금원이 활동했던 19세기는 물론 20세기 초반까지 금원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음을 다양한 기록들을 통해 밝혔다.

금원이 김이양과 함께 여행했다는 이취정의 기록은 금원의 여행 성격과 여행 기록에 대해 다시 살펴볼 여지를 남긴다. 금원이 여행이 혼자 떠난 것인지 동기로 다른 일행과 함께 떠난 것인지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일행과 간 것인데도 그것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것은 금원이라는 기녀 출신 문인의 의식과 심리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과제로 미룬다.

## 참고문헌

### 1. 자료

- 임치균·부유섭·강문중 역주, 『기각한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1~372쪽.
- 김금원, <호동서락기>, 필사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 김금원, 『금원집』, 필사본,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 김안서, 『옥잠화: 김안서 번역시집』, 온이퍼브, 2016, ebook.
- 김정희, 『완당선생전집』, 한국고전번역자료 DB.
- 신귀현 역편, 『역대여류시가선』, 학예사, 1939, 1~264쪽.
- 이유원, 『임하필기』, 한국고전번역자료 DB.
- 이혜순·정하영 역편, 『한국 고전 여성 문학의 세계(산문편)』, 이화여대 출판부, 2003, 1~469쪽.
- 이휘정, 『方野漫錄』,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DB.
- 지규식, 『하재일기』, 한국고전번역자료 DB.
- 허미자(편), 『한국여성시문전집』 5, 국학자료원, 2004, 2187~2484쪽.
- 홍한주, 『해옹시교』, 한국고전번역자료 DB.

### 2. 논저

- 김경미, 『조선 후기의 새로운 여성 문화 공간, 삼호정시사』, 『여/성이론』 5, 2001, 225~242쪽.
- 김경미, 『여성, 오래전 여행을 꿈꾸다』, 나의시간, 2019, 1~227쪽.
- 김여주, 『『綺閣閒筆』을 통한 19세기 여성문학 활동에 대한 일고찰』, 『한문고전연구』 37, 2018, 177~220쪽.
- 김지용, 『삼호정 시단의 특성과 작품』, 『아시아여성연구』 16, 1977, 105~143쪽.
- 박영민, 『19세기 문예사와 기생의 한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1~390쪽.
- 백민자, 『『湖東西洛記』一考』, 『국어문학』 50, 2011, 217~240쪽.
- 백민자, 『『湖東西洛記』와 금원의 傳世 열망』, 『語文研究』 78, 2013, 179~206쪽.
- 서현아, 『『湖東西洛記』에 나타난 金錦園의 삶과 의식지향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1~70쪽.
- 손앵화, 『조선조 여성 퇴기의 새로운 모색: 金錦園의 <湖東西洛記>를 중심으로』,

- 『국어국문학』 39, 2004, 164~186쪽.
- 안순옥, 「호동서락기의 글쓰기 방식과 제재적 특질」,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0, 1~68쪽.
- 이혜순, 『조선조 후기 여성지성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1~387쪽.
- 이효숙,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의 산수문학적 특징과 금원의 유람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173~211쪽.
- 이효숙, 「조선 후기 여성 문인의 시사와 김경춘의 비평」, 『우리文學研究』 53, 2017, 99~124쪽.
- 임치균·부유섭·강문중 역주, 『『綺閣閒筆』 研究』, 『고전문학연구』 32, 2007, 435~464쪽.
- 장효현, 『徐有英 文學의 研究』, 아세아문화사, 1988, 1~301쪽
- 차옥덕, 「김금원의 詩에 대하여-새로운 여성정체성 세우기」, 『고전문학연구』 15, 1999, 317~358쪽.
- 하경숙, 「여성 인물의 현실인식과 의미 양상-금원(錦園)의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26, 2017, 145~172쪽.

## ABSTRACT

A Study on *Kumwonjip*(錦園集), Versions of Hodongseorakgi(湖東西洛記)

Kim, Kyung-mi

This article introduces *Kumwonjip*錦園集 for the first time and tries to compare it with another version, Hodongseorakgi in the Yonsei University Library to reveal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n analyzes and reviews them together with the records related to Kumwon. *Kumwonjip*, which is in the Ewha Womans University Library, contains Hodongseorakgi, two poems of Kumwon and a poem of Jukseo竹西 with the introduction of Jukseo. What is noticeable about *Kumwonjip* is that its Hodongseorakgi tells about Kumaeng錦鶯, a courtesan who was never mentioned in the Hodongseorakgi in the Yonsei University Library. Another important thing is that *Kumwonjip* does not include any reviews of the female poets like Uncho, Jukseo, and Kyungchun who were gathered with Kumwon in Samhojeong.

While the preface of Hodongseorakgi in the Ewha Womans University Library and the preface of Hodongseorakgi in the Yonsei University Library are similar in purpose, they show differences in quantity and content. The preface of Hodongseorakgi in the Ewha Womans University criticizes women's regulations and expresses the idea that outstanding achievements and actions of women are important, praising women such as Queen Jindeok and Heonanseolheon who have made outstanding achievements in literature. On the other hand, the preface of Hodongseorakgi in the Yonsei University Library quotes the Chinese testimony or the Confucian scriptures, and explains why people travel, why women cannot travel, and why they want to travel. These two prefaces also shows difference in the phrases and expressions.

Considering these, it follows that Hodongseorakgi in the Ewha Womans University might copy another version other than Hodongseorakgi in the

Yonsei University Library and it might be written after the death of Kumwon. While the records of Kumwon written by male writers in the 19th century focus on the life of Kumwon as a courtesan, the writings by Kumwon herself and her family do not tell about the life of a courtesan. *Kumwonjip* and *Hodongseorakgi* in the Yonsei University Library also seem to reflect these trends.

**Key Words** *Kumwonjip*, *Hodongseorakgi*, Kumwon, Kumaeng, Samhojeong, Kigakhanpil

논문투고일 : 2020.01.31
심사완료일 : 2020.02.15
게재확정일 : 2020.02.20